

한국 외신보도의 문화적 함의*

Cultural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News in the Korean Press

I. 서론

외신은 물리적 거리와 국가적 경계를 넘어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세계로 나 있는 창(windows on the world)’으로서 가장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국제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하나이다. 오늘날 국제여행과 인터넷 등 각종 국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일상화, 보편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외신 보도는 아직도 어느 나라에서나 다른 나라에 대한 지식과 정보, 나아가서는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 형성의 주된 원천 또는 영향원으로서의 위치를 견지하고 있고 그 사회·문화적 기능과 역할은 지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나라의 외신 보도가 어떤 양적·질적 수준과 모습을 갖는가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크나큰 함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외신을 포함한 모든 뉴스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비추어 주는 ‘거울’이라기보다는 ‘구성된 현실’, 말하자면 특정한 방식으로 선택, 구성되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며, 이 게이트키퍼(gatekeeping) 과정에서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가치와 의식이 당연히 작용함은 물론 수용자들의 사고와 의식까지도 특정 방식으로 구성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일 입전(入電)되는 다양하고 수많은 외신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가공하여 수용자들에게 제공하느냐 하는 과정에서는 각종 게이트키퍼의 특정한 의도나 목적이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며, 외신은 단순히 외국에 대한 뉴스나 정보뿐 아니라 그것에 함축된 갖가지 가치나 의식을 동시에 전달하고 우리의 세계관이나 타문화에 대한 인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 추광영,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05), 제11장.

것이다. 더욱 광의로 볼 때 외신은 이런 연유로 하여 국제적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고는 그 영향의 진면목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지난 30년 간 구미 선진국(제1세계)과 후진 저개발국(제3세계) 사이에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여 오고 있는 이슈는 정치나 경제적 이슈보다도 오히려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의 ‘신국제 정보질서 운동(New World Information Order: NWIO)’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제3세계의 주장은 외신, 즉 국제간의 뉴스를 포함한 갖가지 국제 커뮤니케이션 매체, 예컨대 신문, 잡지, 영화, TV 프로그램, 비디오, 음반 등의 전통적 매체뿐만 아니라 컴퓨터 통신, 게임, 인터넷 등 최첨단의 매체들을 모두 망라하여 전 세계적인 유통의 과정은 모두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만 흐르는 일방통행적 구조이며 양적·질적 면에서 모두 불평등·불균형한 왜곡된 구조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매체들은 단순히 뉴스나 오락 또는 상품의 차원을 넘어 문화 침략과 문화 종속을 야기하는 이데올로기 침병으로 기능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적이고 사회문화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존 구조를 시급히 개편하여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구미 선진국들은 현재의 국제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단지 국가들 간 발전 속도의 차이에 연유한 역사적 우연일 뿐이며 후진국의 발전에 따라 각종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와 기반시설이 개선되면 저절로 해소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의 전통적 자유주의 사상을 내세워 인위적인 구조개편을 거부하고 뉴스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free flow of information)’을 국제간에도 보장해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적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이 그들이 주도하여 만든 UNESCO에서 탈퇴하게 된 동기도 바로 이 쟁점 때문이었다.

제3세계의 ‘신국제 정보질서 운동’은 물론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불평등·불균형 구조를 시정해야 된다는 요구이다. 그러나 기실 이 운동은 단순히 문화적 차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 운동은 제3세계의 ‘제3단계의 해방운동’, 또는 ‘탈식민 운동’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결국 정치적 독립을 획득하고 나서 국가 발전, 말하자면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간단없이 노력해 온 그들이

좌절하게 된 원인은 바로 세계의 현존 정치·경제·문화적 구조가 상호 밀접한 관련 하에 모두 서구 편중적 불평등 구조로 짜여져 있으며,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의 자주가 정치적, 경제적 독립의 전제 조건이며 커뮤니케이션이 개인과 사회의 성장, 발전에 가장 필수적인 기본 과정이며 통합적 문화 현상일 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기본적 배열(arrangement)”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¹⁾. 말하자면 외신을 포함한 각종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은 개인차원이 아닌 전국가적(全國家的)차원에 걸치는 것이며 세계적인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의 자주가 정치적, 경제적 독립과 발전의 필요조건이 된다는 체제론적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UNESCO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의 연구를 위한 국제위원회>, 속칭 <맥브라이드 위원회>가 실증적으로 밝힌 바 있듯이 현존 국제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제3세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거의 90% 이상의 외신은 서구 4대 통신사가 생산, 공급하고 있고 그것도 주로 선진국에 관한 뉴스 일변도이며, 질적으로도 선진국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반면, 후진국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뉴스가 대부분임이 사실이다²⁾.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대까지의 사정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서구 통신사에의 의존은 세계적인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³⁾. 그러나 지난 80년대 말 이후 우리 언론의 변화는 자타가 공인할 만큼 큰 것이었다. 6·29 이후 ‘언론의 자유화 물결’과 더불어 90년대 벽두부터 사상 유례 없이 격화된 신문의 증면 경쟁뿐 아니라 전 사회의 국제화·세계화 바람이 이와 맞물리면서, 특히 외신은 양적 확대를 보여 왔던 게 사실이다. 통신사 뉴스 외에 이제는 자사 특파원 또는 통신원에 의한 보도가 증가하여 정보원의 다양화와 더불어 질과 내용 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외신 보도는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향상이 우리 외신 보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핵심적 국

1) Herbert. I. Schiller, *Communication and Cultural Domination* (New York: Sharpe, 1976).

2) UNESCO, DOC, CC-80/CONF 212(1980).

3) 팽원순, “한국 통신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82).

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우리 외신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 특히 무한 경쟁 시대의 세계적 여건 변화와 타국과 타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래의 관행과 편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가장 최근의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외신 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언론의 현황과 문제의 일단을 조명해 보고 참여한 쟁점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외신의 문화적 영향과 그 함의를 간략히 개관해 보고자 하였다.

II.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문화적 함의

국제적 정보의 유통구조는 바로 NWIO 운동의 표적이 된 것인 바, Masmoudi는 현존 구조의 특징을 간명하게 다음 몇 가지로 간추리고 있다.

첫째, 현존 구조는 남북 간 심각한(flagrant) 정보의 양적 불균형 구조로서 서구 통신사들이 장악하고 있고, 둘째, 이들 통신사가 인적·물적 자원마저도 독점하고 있는 정보 자원의 불균형이 남북 간에 존재하고, 셋째, 이는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패권(hegemony)의 장악과 실질적(de facto)으로 이들을 지배하려는 의지의 표출로서 후진국은 다만 힘없는 정보의 소비자로 전락되어 있을 뿐이며, 넷째, 후진국 뉴스마저 선진국 통신사가 독점 공급함으로써 후진국에 관한 정보가 태부족하며, 다섯째, 이는 바로 식민 시대가 아직도 온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를 영속화하기 위하여 통신사, 광고/PR 회사, 여론조사회사, TV회사 등이 후진국에 직간접 투자나 기타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이다⁴⁾.

말하자면 현존 구조는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극대화하려는 선진국의 의도적이며 집요한 노력, 즉 신식민주의의 산물이며, 이런 구조를 통하여 경제, 사회, 문화의 제 분야에서 후진국들을 소외시켜 체계적으로 복속시키려는 제국주의적 기도라 것이다⁵⁾.

4) Mustapha Masmoudi, "The New World Information Order," in George Gerbner & Marsha, Eds., *World Communications* (New York: Longman, 1984).

Schiller는 미국이 현존 구조의 개편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로 전가보도로 활용하고 있는 소위 ‘자유 유통의 원칙(The Free Flow Principle)’은 자연발생적인 사상이나 원칙이라기보다 미국이 세계 뉴스 공급 판도를 바꾸고자 2차 대전 종전 후 AP를 세계 최대 통신사로 부상시키기 위해 택한 전략으로서 전쟁이 끝나기도 훨씬 전인 1940년부터 이미 체계적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추진해 왔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세계 제패 과정에서 필수적인 이념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지적한다.⁵⁾ 바로 매스미디어의 문화적 영향을 감안한 체계적, 의도적 노력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현존 국제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모두 선진국, 특히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상업주의와 소비주의를 체계적으로 침투시키려는 ‘문화 제국주의’라는 제3세계의 비난을 쉽게 공산주의 선전’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게 만든다.

1980년대까지 뉴스를 포함한 각종 매스컴 또는 문화상품 자체의 상품성은 사실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다. Reuters를 제외한 AP, UPI, AFP 등이 만성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측면보다 그 이상의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우송비용에도 크게 미달되는, 30분물 1편에 겨우 50달러라는 덤핑 가격으로 저개발국에 제공되는 미국 TV 프로그램은 가격 이상의 또 다른 장기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례이다.

국제 간의 뉴스, 각종의 매스미디어 및 정보통신 상품은 모두 직접적 또는 간접적 문화 효과와 정치경제학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문화 상품들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선진국과 선진국 상품에 대한 호감과 동경심(empathy)을 유발하여 선진국 상품을 선호하게 하고 구매욕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선진국 관광을 염원하게 만드는 등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호주와 캐나다 관광청을 필두로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벌인 관광홍보 캠페인과 같이 국제적 광고 및 PR 등이 모두 이런 단기적 효과를 위한

5) Ibid.

6) Herbert I. Schiller,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for Whom?” in G. Gerbner, ed., *Mass Media Policies in Changing Culture* (New York: McMillan, 1977), 105-118.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들 문화 상품은 서구의 가치와 이념을 전파하는 능동적 이념 기구, 즉 Althusser가 지칭하고 있는 “국가이념기구 (Ideological State Apparatus: ISA)”의 국제판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중요하며, 특히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이를 체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뉴스뿐 아니라 영화, TV 프로그램, 비디오, 음반 등의 오락물은 모두 다국적기업이 장악하고 있고 이들은 전 세계에서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이윤 극대화의 목표를 위하여 가능한 한 세계시장을 조직화하고 이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저항과 통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매스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⁷⁾. 물론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문화 침투는 이윤 신장을 위한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그 영향은 후진국 사회의 개인과 국가 전체에 걸치는 막대한 것이다.

예컨대 외견상으로는 정치적 또는 문화적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한 또는 무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저항 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미국의 영화, TV 프로그램 등 오락물은 기실 다국적기업의 문화 침투의 첨병으로서 역할하고 있는 것이며, 우연이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체계적 기도에 따라 의도적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Tunstall은 세계적으로 볼 때 모든 매체는 미국이 석권하고 있어 “The Media are America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특히 미국 TV 프로그램의 수출이 세계 도처에서 미국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⁸⁾, Smythe는, TV 프로그램은 가치전파의 능동적 요인으로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미국 사회를 방어하고 또 확장하게 해주는 문화 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개발되어 왔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⁹⁾. 후진국에 수출되고 있는 미국의 TV 연속물인 <Flintstones>를 분석한 Delgado는 이 만화의 이념

7) Herbert. I. Schiller, *Communication and Cultural Domination* (New York: Sharpe, 1976).

8) Jeremy Tunstall, *The Media are Americ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9) Dallas Smythe, *Dependency Road* (Norwood, NJ: Ablex, 1981).

적 기능이 자본주의의 가치 전파임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현대적 소비주의, 자본주의의 모든 특색을 고루 갖춘 고대 석기시대에 살고 있는 이 만화 가족에게는 계급적 갈등이나 사회적 모순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뿐이라는 것이다. 이 사회에서 발전이란 현대적 자본주의로 진행되는 것뿐이고 개인적 성공, 경쟁, 지위 문제가 주된 테마이며 모든 것은 구매력에 의해 평가되고 문제의 해결책이란 현실도피인 것뿐이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만화는 자본주의 사회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직 개인적인 문제만이 존재한다고 믿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에의 순응만을 가르친다는 것이다¹⁰⁾. 수십 년 동안 우리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블론디> 등 미국만화 역시 정확히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연구자들이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오락 및 정보 산업, 즉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무해한 것으로 보이는 외양과는 달리 서구의 가치를 전파하는 능동적 요인이며 자본주의와 상업주의를 필두로 자유 무역, 자유 유통 등의 서구적 가치를 전파하고 영속화시키려는 적극적 이념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문화 제국주의라는 것이다. Ellul은 이러한 서구 가치의 전파 방식을 직접적인 정치 선전에 대응되는 ‘사회적 선전’으로 부르면서 그 효과는 정치적 선전보다 더욱 철저하며 지속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¹¹⁾.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최대 광고업자 중의 하나인 Ogilvy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야말로 미국의 생활을 수출하는 최선의 무기이며, 다이제스트는 미국의 문화공보처인 USIA와 맞먹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다¹²⁾. 이것은 바로 미국 매스 미디어의 문화 침투에 선봉 역할을 맡고 있는 광고업자가 그 실상을 고백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직접적 효과와 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문화적 효과는 국제 커뮤니케

10) Tapio Delgado, “Los Picapidera, Aliados del Imperialism” in L. R. Beltran & Fox de Cardona, Ed., *Latin America and the United States: Flaws in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1977)

11) Jacques Ellul, *Propaganda* (New York: Vintage, 1965).

12) David Ogilvy, “Confessions of a Magazine Reader” in K. Nordenstreng & H. I. Schiller, eds., *National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Norwood, NJ: Ablex, 1976).

이선의 다양한 간접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언론기업을 필두로 한 커뮤니케이션 산업과 연관해 볼 때 지적할 수 있는 효과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후진국 매체 산업의 상업주의화이다. 상업주의와 소비주의가 지상의 명제인 선진국 다국적기업은 후진국의 매체 산업을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배하거나 후진국 매체 소유자들과의 이익 조화적 유착을 통하여 상업주의를 최대의 가치이자 지선(至善)인 것으로 주입하는, 소위 ‘제도 수출(institutional transfer)’에 의해 후진국 매체 기관을 영리기업으로 탈바꿈시켜 그들의 이익을 영속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최근 라틴 아메리카를 필두로 수많은 TV사가 미국의 직간접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고, Murdock이 우리나라 위성방송에 진출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나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하에 미국이 탈규제 또는 민영화의 압력을 세계의 정보·통신 산업체에 펼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¹³⁾.

상업주의 미디어는 근본적으로 대량 생산과 대중 호소(mass appeal)를 통해 최대의 시청자·독자를 확보하여 이들을 광고주에게 ‘판매’함으로써 광고 수입을 극대화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매체와 언론은 ‘대중화’될 수밖에 없고, 최대 다수의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최대공약수적인 호소가 가능한 내용이란 바로 폭력과 섹스 위주의 선정적 흥미본위의 오락물이며 이러한 상업주의는 후진국 언론의 전통적 양식이 아닌 의도적으로 이식된 것이며, 문화제국주의의 침투결과는 후진국 언론을 정치지향적인 것으로부터 상업 지향적인 것으로 변질시켜 놓는 것이다. Somavia는 이러한 후진국 언론의 변질을 ‘언론의 비본연화(非本然化: denaturalized)’로 규정하기도 한다.

매체의 상업주의화는 바로 언론의 편집정책과 뉴스가치 판단 기준의 상업화를 또한 의미하며, 언론인들의 직업적 이데올로기(professional ideology)의 서구화를 수반한다. 즉, 서구적인 상업주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서구의 뉴스 기관이 제작 공급한 뉴스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모방하는 후진국 언

13) Herbert. I. Schiller,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World Business System,”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ssociation XIII World Congress (Paris, 1985).

론의 시각 굴절 또는 문화 종속 현상이 바로 이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태국의 경우에는 외신의 전부를 서구 4대 통신사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설 기사는 “서방의 국외자들이 쓴 배경 정보로 가득 차 있고 3개 영자 신문의 경우엔 국내 집필자는 전무하고 모두 외국 해설가들이 쓴 기사로 차 있는” 기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¹⁴⁾. Rangel의 조사에서도 이런 경향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¹⁵⁾ 그에 의하면 남미의 14개 신문은 최중요 뉴스로서 신혼인 화란 여왕이 화란 의회를 방문했다는 기사를 취급하였으며 같은 날 개최된 아프리카 정상회담은 완전히 무시되었다고 한다. 이 날의 제3세계에 관한 뉴스로는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고릴라 떼와 전쟁(?)을 벌였다는 것과 터키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다는 것 등이 고작이었고, 에콰도르와 도미니카의 군부 반란 등의 뉴스가 빠진 반면 보고타에서는 마녀가 체포되었고 카라카스에서는 다리가 들쭉인 기형 돼지가 태어났다는 등 전형적인 흥미 본위의 기사만이 보도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서구의 상업주의적 뉴스가치 판단이 이들에게도 만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필자 등의 한 연구에서는 우리 편집인들의 가치 판단 기준도 다분히 서구적 상업주의에 경도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통신사 및 신문사의 현직 편집자들과 대학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뉴스 판단 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동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직업적 언론인들은 대학신문 기자들에 비하여 제3세계 뉴스보다 제1세계 뉴스를, 그리고 선정적 흥미위주의 상업주의적 기사를 더 선호한 반면 대학신문 기자들은 상대적으로 제1세계 뉴스와 선정적 뉴스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이 강했으며, 이 경향은 직업 언론인의 경험이 오래일수록, 그리고 선진국 여행 또는 연수 경험이 많을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⁶⁾.

14) Somkuan Kaviya, “A Sketch on Thailand’s Disadvantages in International Mass Communication,” Paper Presented at Fair Communication Policy for International Exchange of Information Conference. East-West Center, Honolulu, Hawaii(1976).

15) Carlos Rangel, *The Latin Americans: Their Love-Hat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7).

16) Choo, K. Y. & Kang, H. D., “Korean Journalists’ Dependence in News Judgment” in Kim, K. D. ed., *Dependency Issues in Korean Development*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7).

언론 보도 관행과 뉴스가치 판단에 있어서 서구적 직업 이념이 만연하게 된 것은 물론 매체 소유주의 상업주의적 이윤 극대화 정책이 그 궁극적 원인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동시에 이런 이념 주입은 훈련, 연수, 여행, 취재 등 선진국 매체기관과의 직접 접촉에서도 크게 영향 받고 있는 것이다. Harris는 선진국 매체기관들이 다투어 후진국 언론인들의 연수 초청을 행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선진국 저널리즘(Northern journalism)” 스타일을 습득시키고 그것이 “올바른 저널리즘(right journalism)”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결과는 후진국의 전통적 저널리즘 관행의 위축과 퇴조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서구적 상업주의가 이를 대체하는 바로 언론의 문화 종속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¹⁷⁾.

Salinas와 Paldán은 이런 현상을 제국주의의 “문화 지배 현상”으로 파악하고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바로 후진국 미디어의 “주변화(peripherization)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국내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재생산에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디어가 생산하는 문화는 그 문화가 기반 한 사회경제적 구조와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으며 사회의(또는 국제적) 권력 구조에 의하여 조건 지어진다는 것이다¹⁸⁾. 주로 다국적기업이 지배하는 선진국 매체 산업이 이윤 극대화와 자본주의의 영속화를 위하여 세계화(globalization), 말하자면 세계적 시장 확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미디어의 소유 구조, 유통 구조 및 상품의 내용 등이 모두 상호작용을 하도록 적극 작용하고 상업적, 정치적, 전략적 및 경제적 영향력이라는 네 가지 힘의 영향 관계에 따라 이를 조정, 통제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문화 침투는 주변국의 산업화와 국제화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주변화 시키는 과정의 하나이며, 주변국의 지배 계급은 국제화된 사회 영역에서

17) Phil Harris, “News Dependence and Structural Change,” in Jim Richstad & Michael Anderson, eds., *Crisis in International News: Policies and Prospec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18) R. Salinas & L. Paldán, “Culture in the Process of Dependent Development: Theoretical Perspectives” in K. Nordenstreng & H. I. Schiller, eds., *National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Norwood, NJ: Ablex, 1979).

지배 문화와의 관계를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고 지배 문화에 동화되면서 그들의 소비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함으로써 자국의 전통 문화의 토대를 붕괴시키며 지배 문화에 대한 저항의 근거를 앗아간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배 문화는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각종 요소를 제거하고, 저항적 커뮤니케이션 풍토를 폐쇄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 표현을 창조해 나간다는 것이다¹⁹⁾. 이런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바로 미디어가 해준다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의 요지는 한마디로 선진국 국제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영향은 단순히 한정된 경제적 또는 문화적 영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후진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로 문화 종속, 나아가서 정치적·경제적 종속마저 모두 이런 문화침략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이라고 하겠다. 환언하면, 무구 무해한 것으로 보이는 외신과 영화, TV 프로그램 등 오락물은 그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이 너무나 큰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외신보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한국 주요 일간지의 외신 보도 경향

1. 내용 분석의 방법

외신(外信)이란 넓게는 ‘국외 뉴스의 총칭’, 즉 ‘외국 관계의 뉴스’, ‘국제 뉴스’를 지칭하며, 협의로는 ‘외국통신사로부터 입전되어 오는 뉴스’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언론사에 설치된 외신부에서 담당하는 일은 국제 뉴스의 수집, 취사선택, 기사 작성, 편집 업무 등이며, 이 부서의 기자들은 외국 통신사로부터 입전되어 오는 뉴스, 즉 협의의 ‘외신’들을 취사선택하여 번역하고 자사의 해외 특파원이 송고해오는 기사를 처리하여 보도한다. 이에 더하여,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한 해설기사의 작성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외신부의 실질적 업무 차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외신을 국제면에 게재되는 기사에 국한시키지

19) Ibid.

않고, 1면, 정치면, 사회면, 문화면, 스포츠면에 이르기까지 신문의 전 영역에 걸쳐 보도되는 나라 밖의 소식들을 외신으로 간주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외신 보도 정의에 근거를 두고,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다섯 개 주요 일간지, 즉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그리고 『한국일보』를 대상으로 표집을 수행하였다. 표집 대상 기간은 1997년 11월에서 1998년 1월까지의 3개월을 선정하고 표본 추출은 이중 무작위로 7주를 택한 후, 다시 해당 주에서 요일 하나씩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회전표집방법 (rotating sampling procedure)’을 택하였다. 이 방법은 선정된 표본들이 특정 요일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컨대 첫 번째 사례는 제1주 일요일에서, 두 번째 사례는 제2주 수요일, 세 번째는 제3주 화요일 순 등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표집된 날짜의 신문을 모아 1면에서 마지막 면까지 신문에 게재된 외신 보도들을 전량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최종으로 추출된 기사 표본의 수는 『조선일보』 116건, 『동아일보』 126건, 『한겨레신문』 82건, 『중앙일보』 112건, 『한국일보』 124건 등 총 560건이었다.

기사의 양적인 분석을 위해서 기사 및 사진의 빈도뿐 아니라 보도량도 고려하여 해당 기사 및 사진의 면적을 제곱센티미터(cm²)로 측정하였다. 사진이 곁들여진 기사의 경우 해당 사진의 면적을 기사량에 포함시켰다.

이상 표집된 전체 빈도수 560건, 전체 기사면적 69,266cm²의 표본 전량을 대상으로 하여 기사 종류 및 정보원별, 기사 발신원 및 대상국별 분석과 더불어 기사의 주제, 논조 및 방향성 등을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2. 내용분석의 결과

1) 기사의 종류

기사의 종류별로는 다음 <표 1>에서 보듯이 전체 560건 중에서 스트레이트 기사가 262건

<표 1> 기사의 종류별 분포

(단위: 건, %)

기사종류 \ 기간별	1995	1998
스트레이트 기사	983 (73.7)	262 (46.8)
해설 및 칼럼 기사	122 (9.2)	91 (16.3)
피처기사	228 (17.8)	146 (26.1)
사진기사		61 (10.9)
합계	1,333 (100.0)	560 (100.0)

* 김민환과 심재철(1995), 『국제보도』, 한국언론연구원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분류 유목에 맞추어 재구성.

으로 46.8%, 칼럼 및 해설 기사가 91건으로 16.3%, 피처(feature) 기사가 146건으로 26.1%, 사진 기사가 61건으로 10.9%를 차지했다. 즉, 외신 보도에서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스트레이트 기사와 피처 기사가 가장 많은 빈도로 보도되는 경향은 1995년에 이루어진 김민환과 심재철²⁰⁾의 연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눈에 띄는 특징은 특파원에 의해 보도되는 심층적인 해설 및 칼럼 기사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해설 및 칼럼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된 것은, 세계화 기치 하에 각 언론사로부터 파견된 특파원의 수가 증가됨으로써 특파원들에 의해 직접 취재되고 분석되는 기사의 비중이 늘어났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인다.

2) 외신 보도의 정보원

외신 보도의 정보원을 크게 세 범주, 즉 뉴스를 각 언론사에 공급하는 통신사, 해외에서 취재 활동을 하는 특파기와 통신원, 본사에서 기사를 작성하는 국제부 기자로 나누어 정보원별로 분석해 본 결과, 전체 560건 중에서 통신사가 3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파기사와 통신원에 의해 보도된 기사가 166건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국제부 기자에 의해 번역, 편집된 기사가 71건, 그 외의

20) 김민환 · 심재철, “국내외 신문의 국제뉴스 내용분석,” 『국제보도』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5).

기사가 9건으로, 여전히 통신사에 대한 의존도는 높게 나타났다(<표 2> 참조).

다음으로, 국내 언론이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외신보도의 정보원인 국내외 통신사를

<표 2> 정보원의 종류별 분포

(단위: 건, %)

정보원의 종류	기사의 빈도
국내외 통신사	314 (56.1)
특파기자 및 통신원	166 (29.6)
국제부 기자	71 (12.7)
기타	9 (1.6)
합계	560 (100.0)

<표 3> 국내외 통신사별 보도 빈도

(단위: 건, %)

통신사	기사의 빈도	
국외	AP	95 (30.3)
	AFP	101 (32.2)
	UPI	4 (1.3)
	DPA	10 (3.2)
	신화사	2 (0.6)
	교토	9 (2.9)
	이타르타스	1 (1.3)
국내	연합	28 (8.9)
	외신종합	64 (20.4)
	합계	314 (100.0)

정보원으로 삼고 있는 기사 314건을 대상으로 통신사별 기사 보도의 빈도를 살펴보면 <표 3>의 결과와 같다. 표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선 AP가 95건, AFP가 101건으로, 4대 통신사에 속하는 AP, AFP가 국외 통신사 중에서 외신 보도의 주된 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외신기사의 발신 국가 및 보도 대상국별 분포

한편, 표집된 보도 기사들을 대상으로 기사의 발신 국가 및 보도 대상 국가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적 근접성 및 문화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분류한 유목, 즉 ① 북미 ② 중남미 ③ 서유럽 및 오세아니아 ④ 동유럽·러시아 ⑤ 아시아 ⑥ 중동 및 아프리카 ⑦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그 분포는 <표 4>와 같았다.

발신지별로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에서 발신된 기사가 1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가 170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발신된 기사가 94건이었다. 보도 대상국별 분포의 경우, 일본이 포함된 아시아 관련 기사가 184건, 북미 관련 기사가 179건으로 나타나 아시아를 보도 대상으로 하는 기사가 5건 정도 많았던 점을 제외하고는 발신지별 분포의 경향과 거의 일치하

<표 4> 기사 발신국 및 보도 대상국별 기사 빈도와 면적 비교

(단위: 건, %)

지역	기사량	발신기사		보도대상기사				
		빈도	면적	빈도	면적			
북미	196	35.0	24,805	35.8	179	32.0	21,682	31.3
중남미	15	2.7	1,183	1.7	15	2.7	1,408	2.0
서유럽, 오세아니아	94	16.8	13,812	19.9	71	12.7	11,984	17.3
동유럽, 러시아	27	4.8	3,104	4.5	23	4.1	2,310	3.3
아시아	170	30.4	19,486	28.1	184	32.9	21,747	31.5
중동, 아프리카	50	8.9	5,913	8.5	56	10.0	6,087	8.8
국제기구	8	1.4	963	1.5	32	5.7	4,048	5.8
합계	560	100.0	69,266	100.0	560	100.0	69,266	100.0

고 있다.

한편, 표집된 기사의 총량 69,266cm²을 대상으로 각 발신 국가 및 보도 대상 국가가 차지하는 기사의 면적을 비교한 결과, 발신 국가 및 보도 대상 국가별 기사 면적의 분포 역시, 기사의 빈도 분포에서 나타나는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기사면적의 경우 북미 지역 발신 기사량이 24,805cm²(35.8%)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가 두 번째로 19,486cm²(28.1%)를 차지하였다.

보도 대상국별 기사면적을 비교해 본 결과 또한 앞서 살펴본 빈도의 비교 결과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우선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보도된 기사의 총면적은 21,747cm²(31.5%)를 차지하였으며,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를 대상으로 보도된 기사의 총면적은 21,682cm²(31.3%)에 해당하였다. 서유럽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사의 총면적은 전체 면적의 17.3%로 역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의 국가들, 즉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과 동유럽 및 러시아, 그리고 중남미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의 면적은 기사 빈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비중이 미미하였다.

참고로 1981년 4대 통신의 외신 전량을 2주일 간 분석한 팽원순²¹⁾의 자료와 비교해 볼 경우, 발신 기사량은 오히려 1980년대 초보다 현저히 북미 위주로 증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팽원순의 연구에서는 북미 기사 19.5%, 서구 및 오세아니아 27.7%, 아시아 35.9%, 중남미 1.9%, 동구 4.2%, 중동·아프리카 11.1%였던 바, 이번 조사와 비교할 경우 북미는 거의 2배가량 증가한 반면, 그 이외의 지역은 모두 대폭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외신 보도 내용의 주제별 분포

다음으로, 기사의 주제별 분포를 보면 <표 5>와 같다. 경제에 관한 기사가 149건으로 26.6%, 정치·외교에 관한 기사가 125건으로 22.3%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외신은 사회와 스포츠 관련 기사였다.

1981년 및 1995년의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가장 뚜렷한 결과는 경제 기사의 괄목할 증대라고 할 수 있다. 경제 기사는 1981년의 8%, 1995년의 12.5%에서 최근엔 26.6%로 증가하여 다른 어떤 주제보다 많고 비중이 커졌음이 보인다.

21) 팽원순, 『한국 통신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1982).

<표 5> 외신 기사의 주제별 분포

(단위: 건, %)

기사의 주제 \ 기간별	1981년	1995년	1998년
정치 · 외교	60 (33.3)	399 (32.7)	125 (22.3)
경제	9 (5.0)	153 (12.5)	149 (26.6)
사회	28 (15.6)	157 (12.8)	106 (18.9)
군사 · 안보	25 (13.9)	209 (17.1)	37 (6.6)
문화	28 (15.6)	115 (9.4)	22 (3.9)
스포츠	17 (9.4)	90 (7.4)	76 (13.6)
환경 · 과학 · 종교	13 (7.2)	99 (8.1)	45 (8.1)
합계	180 (100.0)	1,222 (100.0)	560 (100.0)

* 1981년은 팽원순(1982), 1995년은 김민환과 심재철(1995)의 연구 자료를 본 연구의 분류유목에 맞추어 재구성.

물론 이것은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과 국제적 활동의 증가에 따라 경제 뉴스의 중요성이 커진 것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이루어진 우리 신문의 섹션화 등으로 인하여 경제면 자체의 절대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뉴스뿐 아니라 스포츠 뉴스가 늘어난 것도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는 ‘박찬호 신드롬’이라 불리는 미국 프로야구 뉴스와 NBA 농구, NFL 미식축구 등 미국 프로 스포츠 뉴스가 우리의 읽을거리로 등장한 결과라고 하겠으며 외신 선택의 기준이 바뀌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하겠다.

5) 보도의 방향성 분석

위에서 보듯이 우리의 주요 일간지 외신 보도는 북미, 특히 미국에 관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런 양적 편중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외신의 내용, 말하자면 외신의 소재와 보도 논조, 그리고 보도 내용이 해당 국가에 관하여 주는 인상 등의 방향성은 어떤 것일까? 과연 NWIO 주창자들의 주장대로 선진국에게는 호의적이며, 후진국들에게는 부정적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기서는 선진국과 비선진국(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의 두 범주로 나누어 ① 보

도논조의 방향 ② 보도 소재 ③ 보도내용의 갈등성 ④ 보도내용의 일탈성을 각각 측정하고 비교 분석해 보았다.

① 보도 논조의 방향

논조란 주관이 개입되는 기사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객관적 보도를 전제로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논조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진기사는 제외한 후, 칼럼 및 해설기사와 피처기사에 나타난 논조를 긍정과 부정의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총 227건의 기사는 선진국 기사 144건, 비선진국 기사 83건이었는데, 논조의 방향값을 통계분석한 결과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평균 3.19)가 비선진국 대상 기사(평균 2.35)보다 더 긍정적인 논조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7.43$, $df=25$, $p=.000$). 이는 과거 NWIO운동 진영이 주장하던 바대로 선진국 관련 보도의 논조는 긍정적으로, 비선진국(제3세계) 관련 보도의 논조는 부정적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의 외신 논조가 선진국 편향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② 보도 소재의 방향

위의 논조 분석과는 달리 스트레이트 기사나 사진일지라도 다루는 소재에 따라 독자들에게 부정적 또는 긍정적 느낌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대 특정 국가의 콜레라, AIDS 또는 조류독감 만연 등의 기사나 사진 등은 이런 점에서 그 방향성의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또한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전체 기사 560건 중 해당되지 않은 32건을 제외한 528건의 기사를 선후진국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방향성을 측정하여 역시 통계검증을 실시해 보았다. 분석 결과 선진국 관련 기사 296건은 평균 3.10로 비선진국 관련 기사 232건의 평균 2.1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t=10.13$, $df=526$, $p=.000$).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가 비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보다 긍정적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③ 보도 내용의 갈등성

이와 비슷하게 외신 보도에서 갈등적인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는 경우 보도의 대상이 되는 국가에 대한 인상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게 되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진국 관련 보도와 비선진국 관련 보도가 갈등적인 이슈에 치중하는 정도를 또한 알아보았다. 역시 5점 척도로 측정된 두 집단의 평균점수는 선진국 2.18, 비선진국 3.26으로 비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의 갈등성이 선진국 대상 기사의 갈등성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었다($t = -8.13$, $df = 526$, $p = .000$). 즉, 비선진국 대상 기사가 선진국 대상 기사보다 더 많이 갈등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서처럼 선진국에 대한 보도와 비교할 때 비선진국에 대한 보도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갈등성을 내포할 경우, 그러한 외신 보도를 반복적으로 접하는 독자들로서는 자연스럽게 비선진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지니게 되고 이는 저개발국에 대한 일방적 이미지 왜곡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우리의 외신은 종래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이 밝혀진 셈이다.

④ 보도 내용의 일탈성

선·후진국 뉴스의 일탈성, 즉 소재의 비정상성은 비슷한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즉, 후진국의 뉴스가 훨씬 더 비정상적인 소재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5점 척도 상에 일탈성의 정도에 따라 선·후진국 관련 기사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비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의 일탈성은 평균 3.30으로 선진국 대상 기사가 보여준 평균 2.48보다 더 높았다. 즉 비선진국 대상 기사가 선진국 대상 기사보다 일탈적인 내용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5.74$, $df = 526$, $p = .000$) 예컨대 “남미 칠레의 한 대학 연극제에서 상연되던 연극 도중 배우들이 부부 연기를 하다가 연기 대신 실제 성관계를 가져 관객들이 경악하였다”는 기사, “이란의 10대 소녀들이 자신들을 성희롱한 청년들에게 복수했다”는 기사, 그리고 “태국에서 있었던 원숭이 잔치”와 같은 기사들은 후진국의 경우 일탈성이 매우 높은, 흥미위주의 기사가 주로 보도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V. 우리 외신 보도의 문제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신문에 보도된 외신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의 결과는 문화 종속의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 외신 보도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 번째로 두드러지는 측면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통신사를 외신의 주된 정보원으로 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양적으로 과도하게 선진국에 대한 보도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화’구호의 물결과 더불어 신문지상에서의 국제 관련 뉴스, 즉 외신도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우리 외신 보도는 아직도 서방 4대 통신사에 속하는 AP, AFP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외 통신사 중에서도 아시아의 신화사와 교토 통신사,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사의 뉴스는 지극히 적었고 제3세계 계열의 통신사들로부터 들어온 외신은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바로 ‘Masmoudi의 고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발신지를 살펴봐도,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에서 발신된 기사가 가장 많았고 아시아가 그 다음이며, 이어서 서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발신된 기사가 세 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의 위치와 아시아의 경제 위기로 인하여 아시아 관련 보도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북미와 서유럽으로부터 전해오는 기사가 외신 보도 발신지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북미, 바로 미국 뉴스의 엄청난 증가이다. 1981년 북미 뉴스는 19.5%였으나 금번 조사에서는 35%나 된다. 당시 27.7%이던 서구 및 오세아니아 뉴스는 16.8%로 대폭 줄어 이제는 미국뉴스가 압도하고 있고 우리 외신의 대미 편중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보도 대상국별 분포의 경우 아시아 관련 기사가 근소한 차이로 북미 관련 기사량을 앞섰다는 점을 제외하면, 발신지별 분포의 경향과 거의 일치하였다. 발신지별 분포와 보도 대상국별 분포를 통틀어, 중남미와 동유럽 및 러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관련 기사의 빈도는 극히 낮은 편이었다. 선진국 편중은 바로 또 다른 문제인 후진·저개발국들에 대한 보도의 부족을 결과한다. 아시아를

제외한 중남미(2.7%), 동구 및 러시아(4.8%), 중동·아프리카(8.9%)를 모두 합칠 경우 기사의 비율은 16.4%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화·세계화의 기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점차 ‘세계 공동체’란 이름 아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략 200여 개의 대소 국가가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저조한 비율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양적인 선진국 편중에 이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질적인 차원에서도 선진국 편향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질적인 내용분석을 위해 선정한 네 가지 항목, 즉 보도의 논조와 기사 소재의 방향성, 기사 내용의 갈등성 및 일탈성 수준에 대한 측정 결과, 이들 항목 모두 선진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면 비선진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논조의 경우 선진국 관련 기사가 비선진국 관련 기사보다 긍정적이며 호의적인 논조를 띠고 있었다. 기사 소재의 방향성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 관련 기사의 경우 발달된 모습, 과학 기술의 선진성, 안정된 사회상 등 긍정적인 소재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으며, 비선진국 관련 기사의 경우 비선진국의 후진성 및 사회적 불안정성을 드러내어 주는 부정적인 소재가 지배적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사 내용의 갈등성 및 일탈성 수준의 측정 결과에서도 선진국보다는 비선진국에 대한 보도에서 갈등적인 측면, 일탈적인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Masmoudi의 지적처럼 우리의 외신 보도가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리고 비선진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보도로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신의 문화적, 이데올로기적인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렇듯 편향된 보도는 수용자들로 하여금 선진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케 하며 반대로 비선진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고정 관념(stereotype)으로 기울어지게 하리라는 우려를 낳는다. 이처럼 양적·질적으로 편향된 외신보도는 세계 공동체(global community)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나아가는 데는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를 아는 일이 곧 우리의 세계화의 첩경이며 세계 문화의 다원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일이 곧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양적, 질적 편향성 문제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으로, 외신 보도가 상업주의적 가치에 몰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미국 관련 외신 중에서 스포츠 관련 기사가 예상 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상업주의에 경도된 우리 언론의 외신 보도 관행을 발견할 수 있다. NBA 경기, NFL 경기, 박찬호를 포함한 미국 메이저리그 뉴스와 사진 등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한마디로 상업주의 편집의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피쳐 기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 관련 주제 외신 기사들도 대부분 서구적인 상업주의 문화, 예컨대 미국 및 영국 등지의 팝 뮤직 소개 및 할리우드 영화 소식과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단신이나, “영국 출신 가수 엘튼 존이 기사 작위를 수여 받았다”는 등의 기사, “미국 여가수 휘트니 휴스턴이 건강 문제로 공연 일정을 취소했다”는 등의 기사도 상업주의적 성향을 다분히 담고 있었다. 스트레이트성 기사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서방 선진국 관련 기사와 비교해 볼 때 저개발국가와 관련된 스트레이트 기사들 중에는 폭력성, 선정성이 두드러지는 기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게재되는 것으로 밝혀져, 소재의 선택과 취급 방식 등 뉴스가치 판단에 있어서도 역시 상업주의, 선정주의에 경도된 외신 보도의 관행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언론의 양적,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진행되어 온 대기업화와 상업주의화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겠으며, 바로 미국식 ‘제도 수입’과 ‘직업 이데올로기의 수입’이 이런 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어 보인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언론의 문화 종속 심화 과정은 우리의 외신 보도에 그대로 투영되고 그 내용에 반영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 결과, 우리 언론은 선진국 문화 상품의 판매 경로로서 그들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는데 유리한 토양을 스스로 배양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Salinas와 Paldán²²⁾을 다시 인용하자면, 종속 사회(dependent society)의 문화 영역은 국제적 자본주의 체계의 맥락 속에서만 이해되는 것이다. 문화 종속의

22) R. Salinas & L. Paldán, “Culture in the Process of Dependent Development: Theoretical Perspectives”(1979).

과정은 곧 “종속적 발전의 과정”이다. 여기서 “종속적 발전의 과정(the process of dependent development)”이란, 하나의 주변 사회가 발전해 가는 과정, 즉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높은 산업화·국제화 수준에 이르는 과정은 선진국 중심 세력의 시장 침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과 동시에 진행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왜곡된 발전은 주변 사회를 보다 심화된 종속의 상태로 나아가게 할 따름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Salinas와 Paldán은 종속적 발전의 과정은 새로운 차원의 국제적 지배 질서가 고도화해 가는 하나의 국면으로서, 문화적 영역에서도 그러한 종속적 발전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특히 주변부에서 종속적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데 적합한 사회적 조건을 형성해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미디어가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미디어의 상업화는 선진국의 사상과 가치가 유입되어 그들의 시장 침략과 국제적 지배가 수행되기에 알맞은 환경이 마련되는 과정과 직결되며, 그러한 가운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문화적 주권 내지는 문화적 정체성마저도 위협받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서구적 뉴스 기준에 편향된 외신 보도는 우리의 뇌리에 왜곡된 세계상(distorted world image)을 형성할 뿐 아니라 우리를 상업주의, 선정주의적 가치에 익숙해지도록 조건화시킴으로써 서방 선진국의 문화 상품이 침투해 들어오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더욱이 ‘뉴스’, 즉 세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의 연원 역할을 하는 외신 보도라는 채널을 통한 지배적 가치의 유입 및 이식은 다른 어떤 형태의 문화적 침투보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이데올로기적 영향 또한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외신 보도의 관행과 관련하여 선진국 뉴스 가치의 무분별한 수용 및 그에 대한 편향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VI. 결 론

본고는 최근 3개월간의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외신 내용의 실증적 내용분석을 통하여 우리 외신 보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언론 보도 관행의 일부분을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외신은 타국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 형성의 주된 경로이자 원천으로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 국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그 영향력이 실로 큰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외신의 유통 구조는 선진국 4대 통신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일방통행적 구조이며 양적·질적 측면에서도 선진국 위주의 보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후진국 뉴스와 그것도 선진국에게는 호의적이고 후진국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뉴스가 대부분인 불평등·불균형 구조로 짜여져 있어 국가 상호 간의 진정한 이해에 장애가 되고, 선진국의 문화를 후진국에 전파시키는 문화중속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1970년 이후, 후진·저개발국들이 UN, UNESCO, ITU 등 유수한 국제 토론장에서 ‘신국제 정보질서 운동(NWIO)’이란 이름으로 현존 구조의 개편을 강력히 요구해 오고 있는 것이다.

NWIO는, 외신을 필두로 한 각종의 매스미디어는 사실 단순한 문화적 차원이나 정보나 뉴스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정치,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현존 체제 하에서는 서구의 자본주의와 상업주의의 가치를 전파, 이식시키는 중요한 이념 도구로서 후진국들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제3세계의 ‘제3단계의 독립운동’이다.

1980년대까지의 우리의 외신은 세계적인 경향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90년대 벽두부터 우리 언론의 대기업화와 이에 따른 ‘증면 경쟁’등 무한 경쟁의 여파로 외신 보도는 큰 양적·질적 변화를 겪어 왔다. 과연 얼마나,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1997년 11월부터 금년 1월 동안의 한국,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의 외신 보도 중 총 560건의 표본추출을 통하여 분석해 본 결과는, 한마디로 우리 외신

보도는 선진국 편중 경향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고 상업주의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장(前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신 보도는 1980년대에 비하여 자사 특파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구 4대 통신사와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뉴스가 엄청나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뉴스 증가의 한 원인은 스포츠 뉴스의 폭증으로서,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독자의 취향에 영합하려는 상업주의적 뉴스판단 기준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런 분석 결과는 우리 언론에서 상업주의의 보편화는 언론의 대기업화와 직결된 것으로서 언론이 명실공히 이윤추구의 수단으로만 전락하고 있다는 각계의 비판을 입증해 주는 것이자 동시에 서구의 ‘매체 제도 수출’에 따른 가치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상업주의는 기자, 편집자 등 언론인들의 직업 이데올로기마저 상업주의화 시키면서 점차 양자 간의 상승 작용을 통하여 뉴스 판단 기준이 더욱 더 폭력, 섹스, 일탈성 중심의 흥 미본위의 기준으로 바뀌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처럼, 외신을 포함한 언론 전반, 나아가서는 매스 미디어 일반은 사회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국제적 맥락에서는 후진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속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분석에서 외신보도를 통해 본 우리 언론의 모습은 이런 우려를 증폭시켜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급속히 국제화, 세계화되고 있는 오늘의 전 지구적 여건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외신 보도는 많은 부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간략히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나친 서구 통신사 의존 비율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 특파되어있는 자사 기자와 통신원을 적극 활용, 이들의 보도 비율을 대폭 늘리는 ‘정보원(source) 다변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스포츠 뉴스, 특히 미국 프로 스포츠 뉴스의 비중을 크게 줄여 지나친 상업주의를 지양하고 후진 저개발국 뉴스를 적극적으로 증가시키는 노력을 크

게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 간 문화적 다양성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선진국뿐 아니라 후진 저개발국들과의 수평 커뮤니케이션(horizontal communication)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IPS(Inter-Press Service), NANAP(Non- Aligned News Agencies Pool) 등 후진국 뉴스 풀과 ANEX(ASEAN News Exchange), PACNEWS(Pacific News Exchange), PANA(Pan-African News Agency), CANA(Caribbean News Agency)와 같은 각 대륙별 지역 뉴스 풀 등과의 뉴스 교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나친 상업주의의 지양을 위한 언론인들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보인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하루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다. 그렇더라도 언론인의 본분을 잠시라도 망각하는 일은 곤란할 것이다. 우리 언론인들의 능력과 양식은 결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저널리즘의 본연과 언론의 사명과 책임에 대한 깊은 인식에 바탕한 언론인들 각자의 투철한 자기 계발과 자성을 통한 건전한 직업윤리 의식과 가치를 함양하고 이를 적극 내면화하는 일이 문화 종속과 지나친 상업주의에 물들어 가고 있는 우리 언론을 향상시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으로 믿어진다.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우리 언론에게 기대하는 일은 과연 연목구어 일 것인가?